현불논단

전법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한국불교학회장

중생 근기 맞춰 가르침 전한 부처님
사찰 활동도 중점 두는 대상이 중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다른 것들 잃어
균형과 변화의 틀 고려하며 전법을

생애주기별 전법, 또래 활동이 중요
출 · 재가 막론해 전문가들 동참하자
멀리 내다보고 전법의 틀 갖추려면
현재 처한 패러다임부터 점검해봐야

시대와 우리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추석 명절 차례상의 간소화를 넘어 차례상 차리기 거부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단 추석 명절만 아니라 제사상도 비슷한 양상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후 제수용품 판매 상가가 무너지고 편리함을 찾는 대중은 온라인 구매에 열중한다. 현재의 불교 모습은 어떠한가?

부처님은 11년간의 결혼생활과 6년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깨달음을 성취했다. 또한 중생구제를 위한 가르침을 포기하려다 범천의 권청으로 생각을 바꾸어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중생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전했다. 패러다임(사고틀)이나 행동틀의 전환이 지금 여기 절실히 요구된다. 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자.

역사 속에 널리 알려진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부처님의 생애에 시간, 장소, 사람(십대제자 · 신자 · 여성 · 외도 · 바라문 등), 동물, 식물, 천신, 음식, 자비 등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당시 부처님은 수행과 법담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자들을 지도하셨다. 이처럼 지금 사찰 활동도 스님, 재가자, 불교대학, 기도, 수행, 관광,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입에 따른 효과와 효용 차이를 조사하여 사찰마다 환경을 고려한 활동 중심틀이 달라야 한다.

전법은 자본투여와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업을 하는 이도 자기의 능력과 상황, 조건을 따져 고객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어르신의 생애주기별 대상의 전법에 있어 사고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한 가지만을 집중하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된다. 전통을 고수하면 창의적 개척과 시대적 대응을 놓치고, 수행에 전념하면 전법이나 의례에 소홀하게 되고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중장년, 어르신 중 하나를 강조하면 소외되는 대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과 변화의 틀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대상의 전법은 또래 활동이 중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전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체계를 갖춰 실천이론과 실천기술을 터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불교학자도 대학생 전법학, 단위 사찰 포교학 등 계층별 전법연구에 참여하고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승려도 대학생 전법 매뉴얼이나 어르신 전법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일 전법훈련 연습과 기술전수를 진행해야 한다.

독일의 박사 세미나는 학사 1학기부터 박사과정생 전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박사생이 발표자료를 준비하되 각자 잘하는 부분에 개입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즈음 불교대학에서도 신자에 맞게 강의를 잘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긴 시간을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전법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세상과 존재에 관련된 전법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법대상에 외국인 대학생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여기 불교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불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전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社說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에 부쳐

총무원장 취임 후 국가법령 개정 · 승려복지 성과 다수
"포교 분야 아쉬움"… 실사구시적 종책 등 이뤄져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9월 28일 취임한 진우 스님은 매일 매일을 초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매일 아침을 108배 정진으로 열고, 종무행정 처리와 각종 종단 행사, 사찰 법문을 다녔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청소년 ·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을 했고, 장애인과 이재민 등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이 같은 초인적 행보를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진우 스님이 취임 초 세웠던 원력 때문이다.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K-명상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을 '과거 · 미래 천년을 세우는' 불교 중흥 불사로 천명했으며, 이를 위한 행보를 1년 동안 이어왔다.

그렇기에 1년의 성과도 남달랐다. 진우 스님은 지난 5월 1일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5월 4일부터 사찰 방문객의 무료입장을 본격 시행했다. 이는 60여 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보존 · 계승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법령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띄는 성과다. 지난 8월 24일엔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돼 탑과 사리, 사리장엄구가 사찰의 탑과 부도탑에서 발견될 경우 사찰 소유로 인정받게 됐다. 최근 개정한 종합부동세법시행령을 통해서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 ·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 5월 3일 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해 승려복지 안정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도 진우 스님의 1년 성과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진우 스님은 1년간 성과보다는 아쉬운 점에 집중했다. 진우 스님은 본지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불교가 국민적으로 호응 받고 불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진척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포교 · 전법 분야에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대규모 개각을 통해 2기 집행부를 새로 꾸렸다. 지난 1년이 불교중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시간은 색을 입히며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진우 스님이 내세운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완성은 꼭 이뤄야 할 일이다. 특히 그 안에는 최근 화두가 된 '포교 · 전법 중흥'도 담겨 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종책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종책과 전법이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줄 싱크탱크가 필요하며, 시대에 맞는 종무 행정 기관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 대상들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교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춤형 전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했던 구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법을 한다면 원력과 정재만 낭비할 뿐이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 진우 스님이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 이는 한국불교의 지향점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우 스님의 행보가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出家하기 좋은 가을날 아침

어찌하여 뜨거운 햇살은 화살처럼 나의 온몸으로 날아와 박히는가. 화살이 꽂힌 자리마다 불붙은 아픔이 가슴속으로 파고든다. 삶과 죽음에 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고뇌가 얼마나 깊었으면 찔린 자국마다 진물이 흐르고, 정신이 영글지 못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내려앉은 딱지마다 고름이 배어 나오는가.

그러다가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면 집을 떠나고 싶어진다. 높은 산을 올라 유유히 떠도는 흰 구름에게 햇살로 쏘인 상흔을 펼쳐 보이고 싶다. 아니면 깊은 산속 암자에 숨어들어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싶다. 출가(出家)하고 싶다는 뜻이다.

티베트나 인도에서는 장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가족을 떠나 절이나 사원에 들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나 출가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계급이나 경제력이 있어야만 출가할 수 있기에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불가의 스님들도 출가하면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사찰에서 불도를 닦고, 가톨릭의 수사도 세간을 떠나 수도원에서 수행한다. 도인이라 부르는 그분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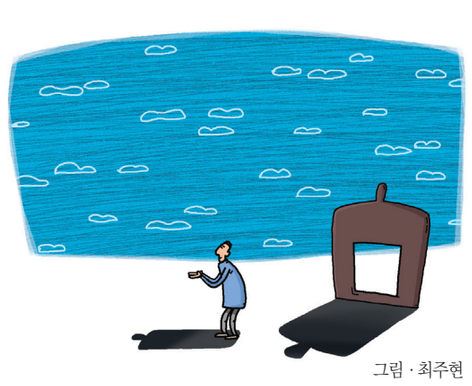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부분 가족을 떠나 산속에서 수련한다. 이렇듯 출가란 집을 떠나 참선이나 기도 또는 몸을 단련하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르거나 신적 존재와 합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지만 차마 가족을 외면하고 출가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늘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술렁거려 잠시라도 집을 벗어나야 했다. 하늘과 맞닿은 티베트 오지의 사원에서 마니차를 돌리기도 하고, 설악산 봉정암을 올라 예불을 드려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은 가시지 않았다. 몸은 녹슬어 가는데 언제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것인가.

출가란 집을 떠나는 것도,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가는 것도, 스님이나 사제가 되는 것도 아닐 터. 출가란 세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끊는 것 아닐까? 집이란 고뇌와 번뇌, 갈애와 욕망이 이글거리는 내 마음 아닌가. 세상의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

그동안 출가를 물리적인 집을 떠나 구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의 악취 나는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출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권력에 가 있으면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을 궁리하고,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소박하게 사는 삶으로 변화하고, 마음이 이성에 가 있으면 이성을 향한 마음을 끊어 내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무상무념(無想無念)의 세계로 들어가 나의 진면목(眞面目)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제, 집 밖에서 방황하지 말자꾸나. 출가하기 좋은 가을날 아침이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